

민수기

탈출의 경로



이동 경로

- 탈출기 : 이집트 -> 광야 -> 시나이산
- 레위기 : 장소이동 없음. 법전이야기
- 민수기 : 시나이산 -> 모압 평야
- 신명기 : 장소이동 없음. 모세의 마지막 설교
- 레위기, 신명기 => 중요한 법전

이스라엘의 원체험

-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탈출기의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체험이다.
- 구약에서 많은 문헌들이 이 탈출 사건을 회상하며 그때 그런 구원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 주고 있다.
- 이 탈출 사건의 이해없이 앞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부활찬송을 이해할 수 없다.

구약에서의 탈출 사건

-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견될 수 있다. 그런점에서 **탈출기**는 “**구약의 복음서**”라 할 수 있다.
- 신약의 복음 메시지 :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.
- 구약의 복음 메시지 : 하느님은 우리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.

민 수 기

- 민수기의 뜻은 히브리어 “광야에서(브미드바르)”이며, 그리스와 라틴말 역본에서는 숫자가 유난히 많이 나와서 “아리트모이” “누메리”이다. 이것을 다시 한글로 ‘숫자’라는 의미다
- 민수기에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. 그만큼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=> 하느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다.
- 모세에게 더 세게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다.

민수기의 구조(약 40년)

- 시나이산 (1,1-10,10)
=> 19일간 체류
- 광야 여정(10,11-22,1)
=> 약 39년간 소요
- 모압 벌판(22,2-36,13)
=> 약 5개월간 체류

성막과 12지파

- 동 : 이사카르, 유다, 즈불룬
 - 서 : 므나세, 에프라임, 벤야민
 - 남 : 시메온, 르우벤, 가드
 - 북 : 아세르, 단, 납탈리
-
- *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음=>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에 항상 계심

오합지졸에서 정예부대로

- 민수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각 지파의 장정수를 조사하여 행군대열을 짜는 일
- 레위지파는 제외되고 대사제를 도움
-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경신례를 올림=> 모든 섭리는 하느님께서 하심

광야생활

- 40년의 교육장소였다.
400년의 노예근성을 뿌리뽑기 위한 교육였다.
(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키우듯) => 하느님 백성으로 형성시켜 준 교육현장임.
- 광야는 지나가는 중간과정이다. 목적지가 아니다.
- 민수기의 백성의 특징: 모세를 통해 하느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경이 눈앞에 닥치면 계속 불평한다(불평은 전염성이다.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부식시킨다)
- 구원의 역사를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.

광야의 불평 테마

- 민 11장 ; 불평, 이집트땅을 그리워 함
- 민 12장 ;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
- 민 13장 14장 ; 정찰대 사건, 반란일으킴
- 민 16-17장 ;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
- 민 20장 ; 므리바의 물 사건(모세도)
- 민 21장 ; 구리뱀 사건
- 민 25장 ; 프오르에서 우상을 섬김

탈출-민수 ; 고통의 차이

-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=> 들으시고, 보시고, 알아채시고 구원해주심
- 민수기에서는 처벌하신다.
- 왜? 노예살이에서 오는 불평은 반역이 아니라 고통의 호소이며 기도였다. 약자의 울부짖음이었다. 그러나 민수기의 광야에서 오는 불평은 외부상황이었다. 견디어 낼 수 있는 것, 자연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.

어떤 차이인가?

- 이스라엘은 시나이산 계약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. 그들은 생존의 차원이 아니라 편의의 수준에서 불평했다.(음식, 권위, 질투, 우상숭배등)
- 민수기에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[하느님께서 죄인들로 이루어진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]이다.

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

- 계약의 두 주체는 하느님과 인간(이스라엘)
- 이스라엘 선택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
- 계약이 갖는 중요성을 안다면, 선택은 은총이라는 것을 체험한다.
- 이 은총의 계약에 대하여 인간이 드리는 응답= 하느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의, 곧 '믿음'으로 나타난다.=계약

되어 가는 공동체

- 탈출을 통해 그들은 하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신앙을 성장시켜 나갔다.
- 광야는 하느님의 심판 행위와 구원 행위를 모두 배우고 체험한 장소였고 이스라엘 교육의 특수한 장소로서 이해되었다.
- 탈출에서 광야의 여정은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이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“당신의 백성”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.
- 모압에 이르기 까지 39년동안 순명의 교육 (구름기동, 불기동으로 가라하면 가고, 멈춰라 하면 멈추는 순명 공동체 의식 교육)

가나안 정탐꾼 파견

- 정탐을 다녀온 대표들의 보고서
- 민수기 13장 33절=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.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.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,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
- 자존감, 정체성의 문제이다=>메뚜기로 비유했다.
- ◆ 민수 11,4-5 : 정체성의 문제...

광야에서 올라진 불뱀(민21,4-9)

